

· 시 ·			■ (연길) 도옥
봄산에서 시를 짓다			
1. 뿌리층계에 앉자	오, 나도 저기 저 푸른 계단 하나로 되고 싶다	3. 수림옥	줄줄 송진 눈물 검은 데 깊은 흙은 우명한 눈 되어 지나는 나그네 멍하니 본다 흙은 성장과 함께 더 깊은 어둠이 된다
층층 뿌리가 허리를 올려 뿌리층계를 만들었다		저 검은 나무들에 푸른 목소리 듣자	
아픈 뿌리 념을 때마다 나무는 속으로 입술 깨물었다	2. 산정 일기	저 흰 하늘에서 날개의 나뭇짐 보자	5. 하늘 기둥
위안처럼 락엽이 덮이고 흙이 올라앉아도 보지만 다시 밀려 등뻘처럼 등을 보인다	두 팔 벌려 나무를 우러른다 나무들 두 팔 벌려 하늘 우러른다 흰 눈 덮고 검은 사람 하나 나무가 된다	저 흰 눈 오솔길에 건설한 발자국 따라가자	아득한 먼 하늘길 혼자서 올랐다 엄동에 한발씩 주고 소소리 하늘길 열었다 한 하늘 푸른 기발 펼쳤다 타실한 살점들에 세월을 털어 속으로 동그란 년륜 새겨넣으며 오직 하늘만 꿈꾸는 푸른 네 숨결 수림에 싱그러운 기운 가득 퍼뜨린다
등을 타고 발자국 넘고 세월이 넘고 력사가 넘는다	두 손바닥 안에 하늘이 고이고 가슴에 수림의 정취가 스며든다	수림을 올라자로 하늘을 솟똥으로	굵은 뿌리 대지의 심장으로 깊이 박았다 푸른 하늘 깊이 청청 커다란 감탄 표로 썼다
나무는 마른 가슴으로 부지런히 해살 빨아들여	멀리도 걸어온 길 나무 올라자 길 따라 봉우리에 오르고 발자국마다 봄기운 열린다	발로 건강을 세탁하는 수림 속에서 오래도록 걸음걸음 청결한 련흔 찾자	
수액과 바람으로 상처를 다듬어 일어섬며 또 뿌리의 층계를 완성한다	두 팔 우러려 하늘을 웨치다 나도 봄하늘처럼 푸르게 물든다	4. 소나무 흙	
		누군가 장난질 갈끝에 깊은 흙이 생겼다 붉은 겹집은 애써 덮어보지만	

[수 필]

웃으면 복이 와요

핸드폰을 보다가 “인간은 날개가 없는 대신 웃는다. 웃음은 가슴의 날개 짓이다”, “웃음이 있는 자에게는 가난이 없다.”라는 글귀에 눈길을 멈추었다. 리치가 있는 말이다. 불현듯 걸으로는 너무 가난해보이나 마음속은 부자인 념마주이군 남자의 웃음꽃 활짝 핀 얼굴이 안겨온다.

마음속 부자? 그렇다! 이 념마주이군 남자는 람루한 웃을 걸쳤지만 길거리에서 힘차게 삼륜차 바퀴를 굴리며 랄라라 신나게 사시장철 폐지를 줍는 다. 념마주이군 남자의 활짝 핀 웃음꽃은 오래동안 지지눌렸던 내 마음의 돌덩이를 내려놓게 해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2018년 초봄이었다. 뇨독증으로 몇년간 투석치료를 받다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 뜬 남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의 고통에 빠져있었다. 후사 처리를 가깝스로 마치고 극심한 비애에 잠겨있을 때 단위 발령에 따라 부부 함께 해외로 출장 떠나게 된다며 손주를 돌봐달라는 아들의 청구 전화가 왔다. 손주를 돌봐달라고!/? 찰나 금방까지 정신줄이 다 풀려있던 나는 신경을 곤두세웠다. 여하를 불문하고 가야 했다. 부랴부랴 짐을 챙겨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것이 지 두시간후 정작 타항에 발을 들여놓으니 생각과 다르고 모든 것이 싱숭생숭하여 저도 모르게 한숨만 휴 - 휴 나왔다. 먼길 오느라 피곤하여 빨리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은커녕 눈물만 줄줄 베개잇을 적셨다. 남자라면 술병이라도 기울이면서 술에 취해 보겠지만 점점 더 말뚱한 정신으로 애매한 시계만 쳐다볼 뿐이었다.

새벽녘에 겨우 새우잠을 자고 그래도 이왕에 왔으니 내 할 일은 해야겠다고 손주 위해 학교 부근에 집을 세 말고 청소에 달라붙었다. 이틀째 이 사집을 정리하다 보니 빈 종이박스가 가득 나왔다. 공풍 묶여가지고 문밖을 나서자 저녁해가 누엿누엿 서산으로 기우는데 웬 젊은 남자가 무슨 일이 그렇게 산바람 나는지 킁작한 비닐 주머니를 하나 흔들며 나를 마주 향해 달려오는 것이었다. 뒤돌아보아도 나 밖에 없으니 필경 나를 보고 웃는 게 분명했다. 천방지축 달려온 남자는 “누님 그 종이박스 버리는 거죠? 날 주세요.” 하며 연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푸짐 좋게 조른다.

솔직히 그 종이박스를 가져 주는 것도 아닌데 하도 그가 허리 굽혀 레모 있게 다정하게 인사를 하니 그를 다시 쳐다봤다. 내가 보니 그가 또 나를 보고 환하게 웃는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늘 우리들에게 걸을 처서 속을 올리게 한다는 말

씀을 하셨다. 바로 낮에 념마주이군의 행동이 나의 속을 올렸다. 불과 몇마디 안되는 고맙다는 인사에서 그의 뽀뽀이를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왜선지 그 념마주이군 남자가 자꾸 생각나고 뭐라도 좀더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나는 또 웃보따리를 헤쳐 한꾸레미 싸가지고 이틀날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 아나나 다름가 멀리서부터 그 남자가 삼륜차를 끌고 코노래를 부르며 다가왔다. 남자는 어제처럼 내 손에 종이박스는 없고 웃꾸레미는 잘 보이지 않으니 자기 뚱이라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았다. 그저 높은 소리로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말을 건네고는 쓰레기통에 달라붙어 뒤지기 시작한다. 작달막한 키가 쓰레기통에 닿을 듯한데 미꾸하여 쓰레기통을 다 뒤지고 나서서 환한 웃음을 보이며 “누님, 나 오늘 수입 꽤 짹짹합니다.” 하고 묻지도 않는 말을 했다. 내가 반신반의하니 물 건들을 산더미같이 꼭 박아실은 큰 터럭을 가리키며 돈으로 계산하면 몇백원은 벌었다고 한다.

“아침에 몇시에 일어나요?” “날이 새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럼 한달에 수입은?” 그는 빙그레 웃으며 손바닥을 짹 펴고 없었다 변졌다 한다. “어머? 천원!?” “네, 천원 넘게 벌 때가 많지요! 본인 안 들이고 버는 돈벌이지요.” “그럼 썩 먹고 알 먹기네. 대단해요!”

“네, 톡톡한 돈벌이니 가슴 썩 펴고 삽니다. 집까지 사야지요.”

남자는 말도 조리있게 술술 잘한다. 그사이 벌써 나에게 믿음이 가는지 자기 아픔을 토로한다. 들을수록 기가 막히고 내 앞에 서있는 념마주이군에게 저도 몰래 엄지척이 나간다. 몇년 전 안해가 병으로 아들 둘 남기고 먼저 세상 뜨고 집엔 년로하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다행히도 아들 둘이 모두 착하고 공부도 잘해 대학을 다니는데 그 녀석들만 보면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자꾸 힘이 솟는다고 말한다! 말하면서 남자는 주먹을 쥐어보였다!

전혀 생각 밖이다.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고 보잘 것없는 념마주이군에게 이런 웅심깊은 사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나를 반주해볼 생각이 들었다. 낡은 웃보따리를 남자에게 넘겨주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 하고는 급히 자리를 떴다.

그날 저녁, 손주는 자기 방에서 숙제를 하듯 나는 념마주이군을 생각했다. 조용히 창문가에 다가가 하늘의 못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몸에는 비록 불품없는 웃을 걸쳤

지만 마음만은 깨끗하고 바다보다 더 넓고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 악취 풍기는 쓰레기통 속에서 보물을 찾고 또 찾으며 희망으로 가득차있는 락관주의정신이 넘치는 멋진 남자!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 본인부터 아니다!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나는 일어서서 창문에 기댔다. 좋은 아파트에서 살며 달마다 나오는 퇴직금도 못 다 쓰고 자식들도 엄마에게 효도하지, 나에게 부족한 게 뭐지! 왜 남처럼 웃고 살지 않고 그냥 우울해하고 울려고만 하지! 손주를 귀엽다고 하면서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니 할머니 눈치만 보고... 손자를 잘 키워준다고 여기까지 온 자신이 자객 미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똑딱똑딱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가리켰다. 두 눈은 점점 또렷해진다. 모든 것을 밝히고 모든 짐을 다 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념마주이군 남자의 웃음을 따라배워 웃으며 살아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웃으면서 사는 인생연습이 시작되었다. 일부러 거울 앞에서 웃어보았다. 어색했다. 한주일이 지났다.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조금 실망했다. 그때마다 다시 념마주이군 남자의 환한 웃음을 상기해보았다. 열흘 만에 약간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신심을 잃지 않고 웃으며 사는 연습을 견지하였더니 두주일 만에 확실히 달라졌다.

우선 손주의 선생이 되었다. 아침 일찍 손주가 일어나면 웃음으로 반겨주고 밥상에서도 예전보다 더 씩씩하게 말도 건네고 학교 갈 때면 역시 웃음으로 배래주었다. 뭐든지 하면서 배운다고 억지로라도 연습을 해보니 과연 진전이 있었다. 차츰 집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손주도 레철 밝아졌고 내가 웃으니 자기도 잘 웃었다. 손주가 활짝 웃는 얼굴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남기고 가는 뒤모습을 지켜보는 나는 세상의 복을 다 안은 기분이되었다.

나의 모든 생활도 활기가 넘쳤다. 웃음을 모르고 살던 때에는 얼굴에 검은 기미가 많아서 거울 볼 때면 무척 상심했는데 념마주이군을 따라배워 웃기 시작하면서 약 반년후에는 놀랄게도 그 많던 얼굴의 기미가 몽땅 사라졌다. 미용원에 가도 볼거는 하던던 이 병을 천연웃음으로 치료하고 생기를 되찾았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

하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와 손주가 대화를 주고받는데 40대 젊은 녀성 둘이 동시에 나의 얼굴을 훑어지게 쳐다보며 웃는다. 왜 웃냐고 물었더니 “이모님의 웃음이 너무 찬란한데 녀세

는 얼마나 되세요?” 하며 물어온다. “칠십이 넘었는데요!” 하고 말하자 젊은이들이 놀라운 표정으로 50대 아줌마 같이라며 비법이 무엇인가 궁금해한다. “비법?! 웃음일세!” 나의 대답에 그녀들이 “하하~호호” 웃는다. 그날따라 운도 좋았다. 슈퍼마켓에 물건 사러 갔는데 또 낯모를 젊은 녀성이 나를 뵈히 쳐다보며 형상이 멋지고 웃음이 이쁘다면서 칭찬한다. “정말요?” 하고 반문하니 정말이라고 정색해서 말한다. 나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남기고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내 보기에도 젊은 기색이 확연히 알린다. 인츰 폰을 꺼내들고 ‘찰칵’ 셔타를 눌렀다. 폰에 뜨는 한장 두장 사진에 나의 검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회춘한 듯 싶어 애들처럼 사처에 사진을 날려보냈다.

마음이 젊어지니 어깨에 날개 돋친 듯 훨훨 날 것만 같았다. 신바람 나서 치마자락 날리며 전자풍금 배우러 다녔다. 학원들이 꽤 많았다. 전자풍금반 선생님은 강의하실 때 나만 보면 교실 안이 환해지는 것 같고 나만 보면 기분이 엄청 좋아져 강의가 잘된다 고 하신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기저기 활동에 참가해서 내 이름이 박힌 상도 타고 칭찬받을 때마다 너무 기뻐할때 참도 오지 않는다. 가끔씩 뺨스에 앉아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이쁘다는 칭찬을 받을 때마다 곤손히 머리를 끄덕여 감사를 표하고 집에 돌아와 사진을 찍고 또 동영상을 제작해서 위챗계정 (视频号)에 발표해본다. 응원의 하트와 부럽다는 문자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날아든다.

이게 바로 로년생활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닐까! 칠십 중반이지만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방성방실 웃는 해바라기처럼 환하게 웃는 것에 온갖 실험을 다 기울이며 서로서로 웃음을 주고받는 세상이 무엇보다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무한한 긍지감을 가슴 뿌듯하게 느끼게 된다.

내가 이 념마주이군 남자를 만난 지도 이제 꼭 7년째 된다. 그사이 그 남자는 나에게 념마주이라는 이 보잘 것없는 직업으로 천만금보다 더 귀중한 인생교육을 전파했는가 하면 또 정답이 없는 황혼의 인생길에 환한 웃음꽃 만발한 응원을 더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웃음 속에서 반듯하게 잘 자란 손주는 190 센치메터의 큰 키에 대학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 손에 쥘 통장은 없지만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머지 인생도 여전히 념마주이군 남자의 보약같은 웃음을 본보기로 언제 어디서나 웃음과 동반하며 풍요로운 삶의 매아리를 멀리 올려가고 싶다.

[서정수필]

■ (훈춘) 김동진

청사 (靑蛇) 의 봄

바야흐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청사 (靑蛇) 의 봄이 허물 벗은 한마리 푸른 배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혜와 슬기로 다듬은 봄, 변화와 번성을 꿈꾸는 봄, 재생과 부활의 의미로 다가오는 봄, 이러한 청사의 봄이 파아란 바람으로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 겨울의 끝자락은 춥기도 했습니다. 림춘이 지난 다음 갑작스레 밀려온 한파는 바뀌는 계절의 회전무대에서 선뜻이 물러가기를 저어하는 혹독한 겨울의 마지막 발악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으로 충만된 세상을 살기 위해 봄은 그렇듯 행궤한 겨울이 만들어낸 고통의 시련을 이겨내고 지금 막 푸른빛을 뽐내 감은 한마리 배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민속적으로 수천년의 력사를 인류와 함께 살아온 뱀이고 보면 그 존재가치는 가볍게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땅 밑과 땅 우를 자유롭게 오가며 왕성한 생존찬가를 부르는 푸른 배암은 젊음과 생명과 활기의 상징으로서 부활과 재생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니깐요. 시내가 실버들에 새음이 트면 양지 쪽 얘기잔디 머리를 들고 파랑개새 희망을 속삭입니다. 진달래 피여나는 언덕을 넘어 종달새의 노래에 맞추어 꽃나비 춤을 춥니다. 해동의 대지와 더불어 부푸는 사랑의 푸른 가슴마다 행복의 물결이 설레입니다.

젊음과 생명과 희망과 사랑, 그리고 정열과 약동으로 충만된 복합적 이미지로서의 봄의 위력은 그만큼 당당하고 호매로운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동토의 땅에서 해동의 나팔을 울리며 룽색혁명의 푸른 기발을 들고나오는 봄의 물결을 볼가 항궤이라고 말합니다.

마침 여기에 〈봄은 배암이올시다〉라고 청사의 봄을 노래한 자작시 한수가 있어 읊어봅니다.

봄은 배암이올시다
산 너머 남쪽 어느 바위굴에서
스르륵 스르륵 배밀이하는

한마리 파아란 배암이올시다

비늘무늬 촘촘한 나들이웃에서
풍겨오는 파아란 향기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마력이 있어
고체로 결박되었던 강물마저
얼음의 사슬 끊어버리고
감궤는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한마리 파아란 배암의 숨결이
하늘의 은총으로 살가운 곳에
눈을 뜨는 잎이 있고
망울 터치는 꽃이 있고
지중거리는 종달새가 있으니
참으로 위대한 배암이올시다

봄은 배암이올시다
탈피하는 인고의 가슴으로
여름강을 건너고
가을숲을 지나서
엄한의 하얀 이불 속에 누웠다가
동면의 또아리를 풀고
부활의 기지개를 켜는
한마리 파아란 배암이올시다 .

그렇습니다. 의심할 나위 없이 봄이란 한마리 푸른 배암이올시다. 예로부터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라”라고 노래했듯이 봄은 에이제 없이 푸른 배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봄은 영원한 청사의 봄이란 말입니다.

한층 앞으로도 봄은 한사코 열과 빛과 향을 지닌 푸른 배암으로 우리의 강산을 찾아올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꿈이 있는 것은 모두가 봄을 기다리거늘 하물며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봄을 떠난 청춘이란 있을 수 없으니깐요. 푸른 배암이 없는 봄을 상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리라 하겠습니까.

잠깐 머물다 가도 좋습니다. 계절이란 알고 보면 하늘이 배치해준 순리대로 오는 것이 떠나가는 시간이요, 흐르는 물 아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 엄똥실한 이겨낸 이 아름다운 청춘을 목궤껏 노래하고 목궤껏 사랑해야겠습니까. 다름아닌 이 땅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젊음과 생명과 활기를 아궤고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 시 ·		■ (연길) 박정자
내 고향 연변땅(외 2 수)		
장백산의 썩과 마늘의 기운 받아 우뚝 일어난 땅	눈앞에 목표가 있는 듯 려차는 쉬지 않고 달려만 간다	
해란강 굽이굽이 벼, 수수, 콩, 사과배… 오곡백과 뻗어 살 키워주고	이순 (耳順) 의 역을 지나 고희 (古稀) 의 역에 다다른는 봄 기속도만 더해지고 시간은 일초의 여유로도 머무르지 않는다	
잘 여문 옥수수 하모니카 불며 아 에 이 오 우… 우리글 익혀주며 갓끈 졸라맨 어르신들 어루쓸어 께우쳐준 땅	아버지	
대대손손 천년 푸른 소나무 학두루미 날아들어 깃을 치는 땅	새벽별을 이고 나가셨다 저녁달을 등에 지고	
비 오고 바람 불어도 늘 젊어있는 내 고향 연변땅	집으로 향해 가시는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 터벅터벅	
	한생을 뻘뻘지도록 정미기개와 씨름하며	
	뽀얀 먼지 마시며 등허리 휘도록 일만 해오셨던 아버지	
	어쩌다 무거운 고개 들어 서넛 하늘 바라보면	
무엇 때문에 그리 바쁘게 달려왔는지	초생달이 해궤 웃는 모습따라 이제 겨울 지나 봄이 온다며 웃음꽃 활짝 피우시던 아버지	
더러는 탈선도 하고 고장도 나고 수리하느라 쉬어갈 만도 했었는데		